

**담당 : 홍보팀 강명윤 대리ㅣ Office : 02)560-4442 ㅣ Mobile : 010-2996-7842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09:00 ㅣ 보도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09:00**

**대 회 주 요 출 전 선 수 코 멘 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
| 2 | 기 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4일(일) |
| 3 | 장 소 |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OUT) / 숲길(IN)] |
| 4 | 주 최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크리스에프앤씨 |
| 5 | 주 관 | KLPGA |
| 6 | 총 상 금 | 13억 원 (우승상금 2억 3천 4백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605야드 |
| 8 | 참가인원 | 132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이정민, 김민선7, 방신실, 김민주, 이예원, 박보겸, 고지우, 유현조, 박현경,  박지영, 마다솜, 배소현, 정지효, 송은아, 전예성, 이다연, 장하나, 장수연,  정희원, 최혜정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SBS(지상파),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08시 ~ 18시  [2라운드] 08시 ~ 18시 (SBS지상파 16:00 ~ 17:00)  [3라운드] 09시 ~ 16시  [최종라운드] 09시 ~ 16시 |

**1.이정민(33,한화큐셀) - 디펜딩 챔피언**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7434**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KLPGA 챔피언십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서는 대회는 저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우드는 그린 경사가 심해서 아이언 샷이 중요한데, 아이언 샷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메이저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서는 분위기를 최대한 즐기고 싶습니다.

**2. 김민선7(22,대방건설) - 전주 대회(덕신EPC 챔피언십) 우승자**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097**

올 시즌 KLPGA 챔피언십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대회에서 먼저 첫 우승을 이룰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찾아온 것 같고, 이번 대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샷감을 포함해 전체적인 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흔들리지 않고 제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차분하게 제 경기를 풀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3. 박현경(25,메디힐) - 2020,2021 본 대회 우승, 2024시즌 다승왕**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30**

KLPGA 챔피언십은 첫 우승과 2연패를 달성했던 대회라 특히 뜻깊습니다. 역사가 깊은 대회에서 제 이름을 남길 수 있어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매년 참가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대회를 치를수록 샷과 퍼트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만큼 누구나 우승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흔들리지 않고 제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본선에서 진출해 우승 경쟁에 나설 기회가 온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상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4. 방신실(21,KB금융그룹) - 2025시즌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상금순위 1위(\*’덕신EPC 챔피언십’ 종료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095**

루키 시절 정규투어 데뷔 무대가 바로 이 대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많은 대회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코스 특성에 맞춰 자주 나올 수 있는 세컨드 샷 거리에 대비해 짧은 아이언 샷과 웨지 샷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을 꿈꾸는 권위 있는 메이저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5. 박지영(29,한국토지신탁) - 2024시즌 다승왕**

**상세 프로필 :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362**

KLPGA 챔피언십은 가장 권위 있는 메이저 대회인 만큼, 은퇴 전에 꼭 한 번 우승하고 싶은 대회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샷 교정에 힘쓰고 있으며, 쇼트 게임의 디테일한 플레이를 다듬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 프로필에 ‘KLPGA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글자를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마다솜(26,삼천리) - 2024시즌 다승왕**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401**

KLPGA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항상 더 기대가 되는 대회이고,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좋은 편입니다. 특히 퍼트감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 대회가 기대됩니다. 첫 메이저 대회인 만큼 탑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배소현(32,메디힐) - 2024시즌 다승왕**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589**

한국 여자프로골프가 생긴 이래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대회에 선수로서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역사 한 페이지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전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대회인 만큼 티샷의 정확성과 비거리, 그리고 아이언 샷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8. 전예성(24,삼천리) - 2024시즌 본 대회 준우승**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082**

레이크우드에서 첫 우승을 거두고, 지난해 버디 기록도 세웠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 대회는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작년처럼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퍼팅과 아이언 샷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고지우(23,삼천리) - 2025시즌 5개 대회 연속 톱텐 기록**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112**

우승이라는 결과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KLPGA 챔피언십은 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인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